

지 상 법 석

계엄을 건지는 지렛대

“계를 수지하여 마음 닦음으로 선정 생기고 선정으로 말미암아 지혜 드러납니다 이것이 번뇌를 없애는 삼학입니다”

도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된 까닭은 마음에 의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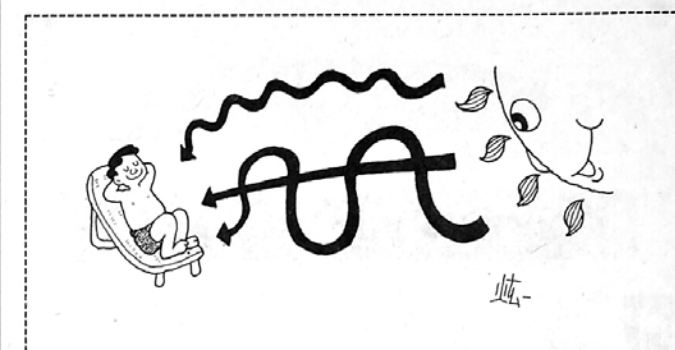
가끔 나를 찾아와서 화두를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삭발염의 하려는 자이면 몰라도 잘 안됩니다. 화두는 마음을 주는 것이지 이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냥 대충 주는 화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불조의 종지는 불립문자요 직지인심이라 했는바 말로써 쉽게 전할 수 있는게 아

하루를 묵게 했습니다. 그집에는 파란한 병아리 딸이 한명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더니 아버지한테 “저스님하고 부부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20살이 되도록 말한 마디 못하던 병아리가 처음으로 말을 한다는 게 스님한테 사지가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도 기가막혀 아단을 치니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요. 하는수가 없어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 스님도 느긋하게 있었는지 허락을 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스님은 재가거사가 되고 두 스님은 공부길을 떠났는지요. 10년이 지나서 두스님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도반인연을 간절히 염원한다면 이루어 질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정년퇴직해서 집에 오면 손자 엉덩이 두드리면서 공부해요. 남노노스 직업에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옛날에 대중을 위한 하면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방에서 만나오는 스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잔과를 부리는 줄 알고 도반스님들이 달래도 안돼요. 그 스님이 입적후에 대비하는데서 도반스님들이 “이노장, 지금도 바쁘냐?”고 하니 “바쁜 소식을 보라”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나 무덤에서 누런 금손이 불꽃 나왔다가는

녹야원에서 첫 법문을 들은 다섯비구는 평생에 호랑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한나라의 셋째 왕자였었는데 하루는 형들과 함께 뒷동산엘 갔었어요. 그런데 등골에 있는 호랑이 새끼 다섯마리가 먹을게 없어 굶어죽을 지경이었었습니다. 셋째왕자는 내뿜 하나 희사해서 살려냈는데는 자비심이 생겨 형제들을 먼저 보낸후 등골로 되돌아가서 살을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장차 부처님이 될 분이라는 것을 짐작했는지 외면을 했어요. 그러자 셋째왕자는 돌조각으로 피를 낸다음 호랑이 입에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수의 본능이 살아났던지 먹더라는겁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남을 위해서 목숨을 초개같이 희생하는 일화가 많습니. 제도하는자와 제도받는 자 사이에도 이처럼 속세인연이 쌓여야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을 보시한 것은 곧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겁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일이란 보통일이 아닙니다. 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 말을 잘 안듣는 사람도 잘듣게 되는 이치가 있는거예요.

나의 스승이셨던 지월스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목욕하러 들어가면 제 옷을 모두 빨아주셨습니다. 난 원래 절에서는 그렇게 하는줄 알고 잠자코 있었습니. 하



‘색수상행식 역부 여시’ 다음 반야심경은 ‘사리자 제법공상 불생불멸...’ 하고 어떻게 모든 것이 공(空)한지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반야를 터득한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의 근원은 그저 공할 뿐이며 생겨나는 것같이 보이지만 생겨난 것이 없으며, 없어지는 것같이 보이더라도 없어진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물리학은 반야와는 상관없고 모든 것을 오관으로 보고 분별지로 판단하지만 제법공상에 수긍한다. 또한 불생불멸은 물리학의 기본법칙이다.

지금까지 여러번 색과 공에 관해 물리학적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모두 물리적인 진공과 물질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성소멸에 관해 얘기했을 뿐 물리적인 법칙이 공한 모습에 관해 논하거지 언급한 적은 없다. 이제 법에 관해 얘기하자면 물리학의 법칙마저 사실 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빛뿐만 아니라 모든 소립자가

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선거리를 따라 움직일 확률도 있고 빙 둘러 다른 경로를 따라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경로를 따라 움직일 확률도 있을 뿐이다. 모든 경로마다 빛이 지나 올 가능성이 있을 뿐 모든 이중 어느 하나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가능한 모든 경로를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다. 빛입자 하나가 여러개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입자가 하나의 경로를 따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해서 동시에 여러 경로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빛은 A에서 B까지 도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빛뿐만 아니라 모든 소립자가

색도 法도 공한 것이 자연의 본래모습 물리학 법칙없는 법칙 ‘제법공상’ 수공

색은 여러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정한 법칙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현대물리학은 이 글자그대로의 뜻을 뒷바침하고 있다.

제법공상의 직접적인 뜻은 색즉시공과는 또다른 것이니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자연은 질서정연하게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같이 보인다. 달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정해진 궤도를 돌며, 지구도 같은 법칙에 의해 정해진 궤도를 따라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와 달뿐만 아니라 모든 별과 모든 물체가 움직일 때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빛도 한점에서 다른점으로 보내면 두점사이의 최단 거리를 따라 움직인다. 달이 지구를 떠나 여기저기 아무데로나 돌아다니다 돌아온다는 법도 없고 빛이 최단거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이리저리 구불구불 움직인다는 법도 없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미시적 세계에서 볼 때는 빛이 최단거리를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다. 빛은 제멋대로 움직인다.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빛을

그렇게 행동한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A라는 점을 출발한 빛이나 입자가 B라는 점에서 불꽃 나타났다고 해야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따라 왔다는 가능성을 합쳐 놓으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빛의 경우 직선거리를 따라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어느 특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데도 거시적으로 보면 일정한 법칙을 따라 정해진 경로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 자연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어떤 물리학자는 “일정한 법칙이 없다는 것만이 진정한 법칙이다”라고 말했는데 적절한 표현이다. 이 말을 반야심경이 표현한 제법공상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인다고해서 무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법(法)마저 공한것이다. 제법공상은 분명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물리학자들이 자연을 기술하는 방법과 일치한다.

색(色)도 공하고 법(法)마저 공한것이 자연의 모습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음욕 억지로 참기보다 생각·행동을 건전하게 “계로 스승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 당부

네요. 특히 중생의 업이란게 워낙 무서운 것이어서 그리 간단치가 않아요. 내 상좌가 열대명되는데 그중 네명은 환속을 하고 들은 대처승으로 가버렸습니다. 남녀이성관계가 참 무서운것입니다. 이 몸통이 자체가 그 업으로 인해 태어났기에 참 무서워요. 다검생을 두고 쌓은 습관이어서 좀처럼 초월하기가 힘듭니다. 함부로 큰소리 탕탕 칠게 아네요. 큰스님 큰스님해도 화장터의 나무 더미위에 올라가 봐야 압니다.

어쨌든 꾸준히 찾고 구하다보면 그에 알맞는 공부인연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다보면 어느 모퉁이에 가서는 의증이 확실해지는 때가 옵니다. 제가 범어사에서 한철을 지낸적이 있는데 그때는 공부가 어찌나 잘되던지 시간가는 줄 몰랐어요. 다들 해제를 하고 뽕뽕이 흘러진 것도 모르고 공부를 했어요. 당시 일타스님이 범어사에 계셨는데 도견수좌는 선열미(禪悅味)를 맛봤다면서 어찌나 말씀하시던지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가 이처럼 힘이 들지만 재가자도 충분히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설거사 얘기가 있어요. 스님세분이 금강산으로 공부하러 가다가 날이 저물어 신도집에

지나가다가 그집을 들렀습니다. 부인에게 거사의 안부를 물으니 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무슨 병이냐고 물으니 생사병(生死病)이라고 해요. 어쨌든 세분이 10년만에 다시 만나 법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거사가 두스님의 공부를 시험하기위해 과제를 하나 냈습니다. 호로병에다 물을 넣어서 천장에다 3개를 매단 다음 그것을 깨뜨려 보니 병어리와 부부가 된 부설거사의 것은 병만 깨지고 물은 그대로 허공에 매달려 있는거예요. 두스님의 것은 병이 깨지니까 물이 다 흘러 내렸어요. 부설거사는 음양의 이치가 전혀 깨달음이 없이 공부를 한것입니다. 부부가 다 대도인입니다. 술에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는데 이들도 다 도인이었습니다. 오빠는 등운조사가 되고 동생은 월명각사가 됐어요.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월명암이란 절이 있습니다. 따님이 공부하던 곳입니다. 부설거사는 몸을 벗을때도 물구나무 서서 떠났답니다. 부설거사가 죽은 업보로 태어난게 아니라 서로서로 공부할 도우려 나온것입니다. 결혼하고 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속가에 있으면서도 결심만 있다면,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출가 재가가 문제 안됩니다. 같이

“깨침은 간단히 열리지 않아요 의심을 품고 꾸준히 연마해야 견지를 체험할 수 있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이정도 실력이면 큰소리 칠만합니다.

수지왕사 일륜왕(諸知王舍 一論王) 만고광명 장불멸(萬古光明 長不滅) 가가, 타일(阿, 他, 日)에 구안자(具眼者)가 견지(見知)면 당발대소(當發大笑)일이라.

누가 왕의 집안에 한 등근달이 만고에 광명이 말하지 않을줄 알겠는가? 하하, 후일에 안목있는자가 본다면 마땅히 크게 웃을 일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견지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풀라요. 깨침은 간단히 열리지는 않습니다. 과거생에서부터 많이 닦아야 합니다. 연마없이 되는 않습니다. 부처님 성도후

루는 지월스님 도반이 오셔서 이 사실을 알고 저를 크게 꾸짖은 적이 있어요. “야, 이놈아 스님의 옷을 네가 세탁해야지, 네가 스님이 세탁하신 옷을 입어? 이 고안놈아!” 지월스님의 그 말은 가르침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그이상의 법문이 없어요. 지월스님 기제일에는 상좌가 아닌 스님들도 많이 옵니다. 다들 지월스님 같은분이 한분만 더 계시면 좋겠다고 해요. 훌륭한 선지식은 공부를 앞당겨 줍니다.

어쨌든 계를 수지하고 선정을 닦으면 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따로 순서가 있어서 차례차례 닦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닦아야합니다. 이 삼학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어 성불하세요.

불은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지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자랑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도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찾아오시려면